

종군위안부 연표

1904. 2.23 한일의정서 조인
 1904 - 노일전쟁
 1905 노일전쟁의 보상으로써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
 철도수비대(관동군)을 임의로 주둔시킴
 이로써 중국진출의 거점을 확보함
 1907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 부임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펴)
 한국군 해산
 일본 내 가라유끼(해외로 진출하는 유곽여자) 수천명이
 조선반도로 유입됨
 조선 전역에 인육시장이 비토소 등장하기 시작함
 1908 조선 내 일본인 창녀. 작부 2914명 (통감부 통계연감)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공창제도로 급속히 발전함
 동양척식회사 설립
 1910. 8.22 한일합방
 1918. 7 - 일본군, 시베리아 출병 — 7개사단 중 1할이 성병에 감염
 1922.6
 1919. 3. 1 조선독립운동 - 조선여성도 남성과 함께 사회참여하는 계기
 1923. 9. 1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 사건 발생
 1925 치안 유지법 공포
 데라우찌 총독 — 아편, 매독, 유곽발전 정책을 펴나감
 거리에 아편흡수파이프(1회 10전) 공공연하게 등장
 농촌지역, 양귀비 재배 압압리에 장려
 1930. 조선민족의 반도 밖으로의 분산조치가 취해짐
 만주로의 대규모 이민정책 실시
 동화정책과 조선인 고급 직종 유입 거부의 차별정책을 병행
 북지나 방면군의 위안설비 요청 (참모총장 수신)
 이후 각부대 별로 위안소사 설치됨
 1931. 6.27 일본 육군참모부의 나카무라 대위 외 5명, 상황정찰 중
 중국군에 의해 사살됨
 7. 만보산 사건 발생 - 조선, 중국농민 간의 수로 분쟁
 양측의 분쟁을 틈타 중국침략의 계기를 만듦
 9.18 만철폭파 사건
 관동군의 전투행동 개시의 발단
 이후 만주지역은 인육시장의 신천지로 변해감

- (일본 국내의 경제공황과 전시체제에 따른 삼업지의 쇠퇴
가 매춘업자들로 하여금 만주로 진출케 함)
조선 농촌지역, 여공모집 광고가 나뉘음
(위안부모집을 공원모집으로 가장함)
- 1931.11 총독부, 여급세 신설
1932. 1.28 상해사변
3. 1 중국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만주국 건설을 선언함
일본군 제12사단 국경지대에 주둔시킴
관동군 기병 제 25연대 중국 “적봉”지역 수비를 담당
금현에서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인솔해옴
당시 조남읍에도 위안부 30명이 있었음
그 중 20명이 조선인 위안부
8. 창부와 기생의 금족을 일제 해제함
총독부령 제 114호에 의거 창기단속 규칙의 개정을 포고함
1935. 3 공창의 폐지를 단행 (내무성령)
1936. 1.25 조선 내 1읍 1면 1신사 건립 - 참배강요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을 강요함
- 4.10 일, 후쿠오카 보병 제 23연대 제 24연대 대소전쟁을 대비해
만주로 파견됨
- 7 여급증명제도 실시 (대전경찰서)
8. 미나미 총독 취임
(전조선군 사령관, 만주사변 시 관동군 사령관 역임)
당시, 조선의 지도급인사 3만 - 3만 8천명 예비구속 후
계엄령 선포 하 총살을 계획하고 있었음
1937. 7. 7 노구교 사건
일, 북지나주둔군 제1연대 제 3대대 키요미즈 중대의
야간연습 중 10여발의 총격을 받음
연대, 즉각 중국정부에 사죄와 조사를 요청
그러나 회답이 오기 전 이치키소좌의 대대가
중국에 포격을 개시함
(당시 일본군의 병력은 군사령관 간이치 중장 이하
2개 보병연대, 통신대 등 5천2백여명 규모)
- 7.20 출병동원령이 내림
— 히로시마 제5사단, 히메지 제10사단, 교토 제16사단
- 7.27 노구교 사건에서 북지사변으로 개칭
- 7.28 북경. 천진지구 에서 일본군 전투행동 전개
조선군 1개사단, 관동군 2개 사단 증파
- 7.30 천진 탈취
8. 9 상해 해군 특별육전대 서부파견대장 오오야마 중위의
상황시찰 도중 홍교비행장 부근에서 피살됨
당시 일본은 불확대 방침을 결정, 성명을 발표
조선민족전선 형성 (국외)
- 8.13 상해전투 개시

- 일본은 3개 사단을 증파 (제6사단, 제 16사단 제114사단)
9. 2 북지사변에서 지나사변으로 개칭
일, 병력동원방침을 수립
국민전신총동원령 계획 실시요강을 발표
조선총독부에 군대요원의 여성 공출을 의뢰함
- 9.15 지나사변 공채를 발행
- 9.25 공장사업 관리령을 공포
10. 5 국제연맹, 반일 결의안을 채택
- 10.16 일, 육군선박사령부에 의해 25마력 이상의 어선을 징용
(승무원을 포함)
10. 말 후쿠오카 택시심야영업 금지 (경찰 포고령)
오오하마 유곽여자들 애국부인회에 단체 입회
11. 5 항주만 상륙
제 18사단 주력부대 야나기사와 병단
제 18사단 후쿠오카 편성 124연대 등 참전
- 12.10 광화문 돌입
- 12.11 일본, 남경합락축하시민대회
(제등행렬, 애국부인회의 히노마루 행진 등)
- 12.12 밤 마쯔이 대장의 남경 돌입
12. 13 -20 남경대학살 사건 발생
(최초의 2 -3일 1만 2천 살해,
남경에서만 4만 2천명 학살 당함)
남경대학살 이후 상해의 일본 군사령부는
매춘관리제도의 설립과 군 직속의 위안부 모집을 서두름
전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둠
만주사변의 음료수 전훈으로 일본은 이때 이미 방역급수부
족, 음료수 보급부대를 조직하고 있었음
- 12.20 일본군 ,화중.화북지구에 17개 사단 병력을 투입함.
참고: 병사의 성을 통제하지 않은 시기 (8.14 - 12.24)
후생성 보존의 군법회의기록
기소: 20명, 강간: 2명
- 1937.12.23 상해의 제1병참사령부에 약 12-13명의 어용상인이 소집됨
사령부로부터 각자 1만 5천엔을 수령
(임시 군사비<정부발행의 임시국채>)
기타큐슈지역의 병사가 많아 기타큐슈지역에서
다수가 모집됨(선금 천엔 지급)
일본의 유곽여자들은 황밤, 출진 축하연을 베풀기도 함
- 12.30 일, 나가자끼역 앞의 스이텐관 여관에 17명의 여자가
모집되어 집결함.(11명은 원저고리 차림)
상해 제11병참사령부의 군수화물이 되어
군수송선을 이용, 나가자끼 항을 출발
(당시 수송규정에 부너자 항목없어 군수물자로 취급됨)

1938. 1. 2 17명의 여자를 태운 가이운마루호
중국 상해부근의 오송부두에 도착
같은 시기, 군공로 지구에 목조가건물이 건설
(관리동을 포함 13동)
1. 4 가이운마루호의 여자들 하선.
상해 기미로의 사경소학교에 임시거주
; 각 어용상인의 의해 모집된 104명
(이중 80명이 조선인, 일본인 24명, 인솔자 6명)
육군 병참병원의 아소군의관 외 1명
부녀자들의 신체검사를 병참사령부로부터 명령받음
1. 5 성병검진대가 제작됨
1. 6 아소군의관 외 10명, 부녀자 129명의 성병검진을 실시
1. 8 상해 군공로 근처의 양가택에 육군오락소 개설
— 중군위안부 제1호 탄생 (센다가꼬오의 견해)
당시 소독약으로 카멜레온수를 사용
- 1.12 관리동에 육군오락소규칙이 나붙음
(제1항을 보면 오락소가 아닌 위안소라 지칭함)
기타큐슈에서도 약 20명의 위안부가 도착함
2. 육군지원병제도 실시
위안소 각 주둔지로 확산됨 (상해, 항주, 상주, 남경 등)
육군오락소 개설 한달 후
상해의 상만진에 민간위안소 시험개설
각 문제점을 보완 군 관리, 민 경영의 형태로 바뀌어 감
(이 시기부터 업자들은 군대를 배경으로
당당히 위안부를 모집하기 시작함)
3. 국가 총동원법 일본 의회에서 심의 (기획원, 육군성의 입안)
3. 조선교육령 포고
- 3 나가자끼의 출신 위안부 상해에서 항주로 180킬로 철도이동
(육군 오락소의 해체에 따라 민간위안소로 이양되는 과정)
가선 지역에서부터 육군제11병참사령부의 중군위안부대로서
각 역마다 정차 병사들을 위안함
4. 1 국가 총동원법 공포
조선총독부의 관여가 시작됨.
5.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
(38년—조선인 특별지원병 300명, 제1보충병 100명)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설치 (지방에 분회를 조직)
- 5.19 서주공략작전을 감행
6. 애국여자회 설치
애국봉사대의 이름으로 모집된 위안부들,
주재소 순사의 호명에 따라 언행되어 옴
(일본인과의 동등대우를 구실로 함)
6. 보병 124연대 상해로 이동

- 6.18 운남원정군을 따라 황하강을 건너는 조선인 위안부
- 7 국민정신총동원령 조선언맹 창립
평양에서는 여자노동군의 모집이 이루어짐
- 8. 장고봉 사건 (두만강부근에서 일어난 일본군의 대소도발전)
조선인 위안부 약300명 사할린에서도 목격됨
(당시 사할린거주 장재술의 증언에 의하면
경남 진주, 사천, 울산 등지에서 나고야 방직공장 모집이라
는 명목으로 속아서 온 16-18세의 조선인 여성들)
- 10.23 일본군의 광동 점령
위안소의 개설을 예고
- 25 중산대학 근처의 민가를 접수해 위안소를 개설함
- 28 무창.한구 공략작전
(당시 중국전선에는 약 3- 4만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음)
- 11. 무창지구 치안유지회 설립
- 1939. 1. 창씨개명을 실시
- 4. 무창지구를 특별시로 지정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함
- 5. 노먼한 사건 (일.소간의 분쟁< 일본이 대패함>)
- 6. 6 군공로의 육군오락소와 강만진의 민간위안소를 검토해
"화류병의 적극적인 예방법에 관한 아소의건서가 작성됨
- 6.26 아소의건서가 상부에 제출됨
- 7. 국민정신총동원령 조선언맹 설립
- 7. 8 국민징용령 공포
- 8. 각지의 기생들 애국부인회에 가입됨.
조선학생 애국언맹 창립
전조선 배영동지회 언맹 창립
- 8. - 9월 노동항 전투 발생
(관동군 1만5천병력을 투입했으나 소련의 반격으로
일본군의 사상자가속출함)
일본부녀자들 남만주지역으로 대피시킴
위안부들은 임시간호부로 대체 활용됨
- 9. 조선부인문제 연구회 창립
- 9.14 임시간호부가 된 하루바다 다미꼬 양, 결핵으로 사망
- 9.15 노동항 전투가 진정됨
- 11. 한일합방 공로자 감사위령제 개최(흑룡회 주관으로 열림)
조선민사령 개정
무창지구 ; 사창의 번성으로 주민의 수가 현저히 증가
제 1사단 위안부의 사기진작을 위한 운동회를 개최
(100미터 달리기의 1등은 항상 조선인 위안부,
그만큼 젊었기 때문)
중국전선이 넓어짐에 따라 중국인 민가를 위안소로 이용함
이 당시 일본군은 1백만장병의 주 1회위안을 계획함
- 1939. — 기타큐슈의 연대 3만 5천명과 16명의 위안부

1944.가을까지 (만 6년간 생사를 동행함으로써 부부처럼 지내기도 함)

- 1940 중국전선에 대한 일본군의 병력 증강이 없어짐
1. 일본 적십자사 존선본부에서 조선인 간호생도 35명을 모집함
 - 1.20 조선총독부 "직업소개령"을 시행함
(경성,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함흥 등 6부에
직업소개소를 설치.)
 2. 11 조선총독부, 창씨개명을 실시
(황국신민화 운동을 본격화 함)
 3. 가가호호 방문, 경찰과 면장을 대동하고 모집.
경성 초지야백화점에 집결 (현 미도파백화점)
 4. 여급.기생실천조합이 결성됨
 5. 여자 직업전사로 각종 근로장에 동원되기 시작함.
 9. 의창공략작전
개들이 물어뜯는 부녀자들의 시체 참상
(강간 후 살해의 방침)
의창점령 후 당양지역 위안소 3곳에 개설됨
일본인 경영의 효관
; 일본인 위안부, 중국인 위안부
조선인 경영의 동백관.백양장
; 조선인 위안부 각10명정도
동백관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 부자 ;
당양지구경비대장의 전속위안부가 됨
효관의 아스사라 ;모자의 강강사건 초래
산서성에 있던 위안소 성병진찰 거부로 영창에 들어 가기도
(대부분 처녀였던 조선인위안부들이었음).
행군도중 어느 고참병의 눈발에서의 강간
— 강간 후 300미터를 뛰어옴
중국전선 치안지구에는 헌병의 순찰로 군기확립
적성지구인 산동성의 경우에는
분대 단위로 1일 2-3건의 강강사건 발생
대대규모로 보면 1일 120 - 180건
남창작전을 감행한 경비대의 경우 촌장에게 강요
8명의 중국인여성을 모아 임시위안소를 개설 ,목숨을 세탁
하남작전 - 토벌작전에 나서는 부대와 함께 위안부가 동행
애국봉사대의 완장을 차고 부대의 후미에 정렬
팔토군과의 전투 -
팔토군의 총알은 맞지 않는다며
전장에서 위안을 계속 강요
1940. 말 무창지구는 성병의 만연으로 지옥화 됨
1941. 6.28 관동군 특별연습 동원을 결의
이 동원 속에는 위안부의 동원도 포함
조선총독부 총무국에 2만명의 위안부 모집을 책임 의뢰

- 실제 모집된 인원은 8천으로 추정
7. 5 관특연 동원 하령을 실시
- 8.10 개전을 결의 후속조치로 병력증강이 이루어짐
- 8.29 작전 개시
8. 홍아보국단 준비위원회 결성
8. 초순 조선임전 보국단 결성
만주지역, 관동군의 대동원 후
조선위안부 1만 5천여명의 위안부가 모집됨
9. -10 제남경비지구 위안소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함
— 성 행위 중이던 반나체의 동료들
빨리 끝내지 않는다며 허리를 단점으로 찌름
중국전선 위안부의 결사대가 조직되기 시작함
— 최전방의 위험지구를 순회 위안하는 일은
언제나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맡겨짐
- 11.22 국민근로보국 협력령 공포
근로보국대가 조직화됨
12. 8 태평양 전쟁 발발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12. 8 제 18사단 말레이 반도 북부 코타바르를 강습
남방의 과실과 수영복차림의 백인 여자를 목표로 진격
- 12.10 유전지대인 보루네오 북부를 급습함
영국함대2척을 격침
일본은 순양함의 거의 전부를 (7척)을 이 지역에 투입
유전지대의 조기 점령을 노림
12. 말 태평양 전역의 육해군 기지에 위안소 개설을 명령
- 12 지휘선의 침몰과 함께 위안부의 수송선인 히에마루호 피격
— 조선인 위안부 7명 중 6명이 태평양에 수몰됨
악간의 군수품이 수몰
위안부는 구난순서에 들어있지 않았음

- 1942 중국 팔로군과의 전투가 치열해짐
제59사단 제111대대는 각 소대를 14명으로 편성한 뒤
위안부 1명씩을 배당함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 포함)
1. 2 일본군의 마닐라 무혈입성
부녀자 강간을 자행
현지군은 제23군사령부에 위안부 100명의 급송을 요청
요코하마에서 모집된 100여명이 급파됨
위안부는 군대의 안전핀 역할을 담당함
마닐라의 모든 호텔이 위안소로 변함
1. 9 보병 제124연대 봉티아나를 점령함
위안부 10명으로 위안소 개설
이후 위안부들은 전황에 따라 섬에서 섬으로 전전함

- 1.22 라바을 진입
남해지대의 주력부대(호리이도타로) 의 상륙
보병 제144연대(시코꾸 편성. 4천명. 연대장쿠스세마사오대좌
- 23 오후 라바을 시장의 딸 대대장이 강간후 차례로 운간
군상층부의 판단으로 남방전선 중 위안부 제일 먼저 배속함
조립식 간이 위안소 등장
(트럭까지 진출해 있던 병참부에서 수송해와 조립함)
라바을의 코코포 위안소 개설
첫날 3킬로의 장사진
여자애국봉사대의 이름으로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들
각 부대로 배치됨
조선인 위안부 14명 주먹밥 먹어가며 1일 90명씩 상대
2. 중순 일본 낙하산 부대 싱가포르 점령
(당시 싱가포르를 영국함대의 근거지였음)
싱가포르를 소남시라 명명함
수마트라의 바렘방지역 제9육군병원장의 업색행각
——육군 위안부 22명과 그뒤 다시 파견된
일본 적십자사 간호부 22명을 차례로 강간
——전 간호원의 생리일람표를 제출토록 명령함
일본, 싱가포르 점령 후 대동아 해저 철도를 계획
(54년도 완성 예정)
철도 대신이 성명을 발표함
- 2.20 각의, 반도인 노무자 활용 관련방침을 결정
조선인 노무자 이동 공출 수송사무를 일원화함
강제언행을 강화
아소군의관 임신3개월째인 위안부를 발견
트럭섬의 육군병원에서 중절수술을 받도록 함
그러나 트럭섬의 수송부에 위안부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음
2. 하순 요코하마를 출발 부산에 기착했던 위안부 수송선
—— 마살군도로 항함
——그러나 거절 당하고 다시 트럭섬으로 감
버어마의 메이묘에 청명장 위안소 개설
——제15군 장교들 호화판의 주색연회를 계속 즐김
버어마의 탕군 수향원위안소 —위안부 약 150여명
3. 칸사이 구마노시에서 48명의 위안부
; 타이베이 마루를 타고 트럭으로 항함
당시, 사이판과 트럭은 합대기지로서 이미 위안부가 있었음
- 3.17 타이베이마루의 도착으로
트럭섬의 위안부는 약 300명으로 늘어남
- 4.16 제53사단 포병 35연대장 다카미,
영국인 소유의 호텔을 몰수한 뒤
영.프랑스 여성을 차례로 강간
이 무렵 이즈 온천의 야마도 여관이 진출해 옴

- 호텔 모두를 위안소로 만들
5. 9 육군대장 고이소 제 8대 총독으로 임명됨
5. 건민운동의 날 (1960년 일본인구 1억 돌파를 계획)
5. 하순 제15군 제56사단 북부버마에서 운남성으로
진입할 것을 명령받음
요충지인 남명의 확보를 위해
보병 제113연대(마쯔이대좌)도 출병
위안부들 전선과 더욱 가까이에서 지냄
5. 일 해군 가달카날섬에 비행장 건설을 위해
4천명의 비무장대원을 투입함
——피지제도에 대한 발판을 구축
- 5.22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항에 위안부 도착
다바오시내에 위안소 개설됨
격렬한 전투 후의 위안을 느낌
- 6.15 다바오에서 팔라우로 위안부 일부 이동
——당시 팔라우는 일본령으로써
위안소는 한적했음
8. 조선인 노동자 이동방지 협화회 노무수첩을 배포함
8. 초 가달카날을 향해 조선인 위안부 20명 일본인 위안부 6명떠남
8. 7 가달카날 비행장 완성 직후 미군 상륙
이에 당황한 일본군은 꾀에 있는
아사히가와 보병 제 28대대의 구축함을 투입했으나 전멸
이후 보급선이 두절됨
——31,358명 중에서 2만 이상이 아사
- 10 한국청년 특별훈련령
(군대에비원양성을 위해 각지에 청년 특별 훈련소를 개설)
라바울에 170명의 위안부, 간이위안하우스에서 위안을 계속
라바울에서 가달카날로 7명의 조선인 위안부 출항
그러나 제17군 병참사령부의 수송선은 출항 6시간 만에
부젠빌섬 근처에서 미군 편대의 기습으로 침몰함
- 10.19 일본의 다산정책
——일 보사부는 전국 1502가족에게 표창을 함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한 인구 증강 정책을 선전
11. 중순 중순관문 터널 개통
——일 신문, 대동아 동맥의 개통으로 대서특필
업자, 대북해군무관부에 피리핀 지역 위안소 허가 요청
12. 13명의 기생과 30명의 공원을 해군 특무정에 실고
마닐라로 항함
바코꾸의 한 절을 위안소로 배당받음
이를 요정으로 개정해 장교용 위안소로 사용함
이밖에도 하사관용 위안소가 4 - 5채 있었음
12. 동경을 출발 나고야를 거쳐 마리아나로
120명의 위안부가 항함

- 항해 도중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는 섬마다
위안부 20명씩을 배속함
- 12.27 가달카날섬 마우스텐산을 마지막 피난처로 삼은 일본군
신체의 활동으로
남은 육체의 생명일수를 통제해 냄
- 1943 학도병 제1기 모집
조혼성행,
정신대 이름 아래 위안부를 더욱 조직적으로 모집함
근로봉사대 역시 수송선에 실려 남방으로 항함
- 1943.1. 1 최후의 식량이 분배됨. 건빵 두알과 벌사탕 한알
보병 제124연대 기수 오비 소위의 일기
- 1 남방연합함대 사령관 이소로쿠가 전사
앗쓰섬 주둔 일본군 전멸
패전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
카이로 선언 (대만반환, 조선독립, 무조건 항복 3개항)
수마트라의 바렘방 병원장,
상등병이 도오조 수상에게 보낸 진정서로 말미암아
제 25군 군법회의에 회부됨
부나킨에서 재판 개정
상등병도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됨
2. 최남단 기지인 가달카날 섬에서 일본군 퇴각해
필리핀으로 후퇴함
일본인 위안부 해군 근거지인 트럭섬으로 전송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새롭게 전선으로 배치되어 파견됨
3. 2 병역법 개정 공포
조선인 징병제 시행
4. 한국지원병 초년병 교육을 실시함
- 5.29 앗쓰섬 전멸
비전투요원의 귀환명령에도 라바울의 위안소 행렬
계속 이어짐
예방주사의 행렬과도 흡사
공습 중에도 방공호 속에서 위안을 강요
6. 2 대일본 노무 보국회 발족
8. 라바울에서 중군간호부들의 철수가 시작됨
9. 해군특별지원병령
국가총동원법 및 국민징용령
- 10 라바울에서 중군 위안부의 철수가 이루어짐
- 10 생산증가 노동강화 대책 요강 발표
11. 1 미군, 부우겐빌 섬 동쪽해안 상륙
일본 위안부는 사이판, 트럭 등지로 후퇴
일 간호부는 일본으로 귀환함
11. 7 오키나와 군사시설 조선인 군부 강제징용

석탄증산운동이 벌어짐

12. 아사히마루호 위안부를 태우고 일본으로 귀국

1944.

징병 1기 모집

버어마의 중남부 제33군 49사단 (늑대병단)3분의 1이

—— 조선인 지원병으로 구성

서울방산국민학교 6학년 4반 이께다 담임 정신대모집

중국 고성현 위안소

——콘돔부족현상으로 위생병이 콘돔회수해 소독재생

1. 수마트라지구 각국 위안부가 거주

백인 여자는 희소가치가 있어 비싼 요금

버어마의 라모우 진지 일본군 1,300명

일본인 위안부 15명, 조선인 위안부 5명

——참호 속에서도 위안을 함

1.23 패그에서 온 새로운 조선인 위안부 서갑수

——전남출신 19세, 입덧을 함

군의원 임신중절 수술을 상부에 건의하다가

상급자로부터 구타 당함

공중변소 하나 둘 쯤 무너져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2. 8 언행조선인 노무자 일반징용령 적용

2.17 트럭섬 새벽 5시부터 전투기 70대의 대공습

18 일본합대 모두 침몰

동굴대피한 위안부를 기미가요로 유인 경기관총으로 난사함

시체 60 -70구 확인

2. 총독부령 제35호에 의거 한국여자 청년 훈련소 개설

——만 16세 이상 국민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23 버어마의 생존자들 주피산맥으로 사라져 감

3. 버어마의 라모우진지 대공격

;신무기로 무장한 5만의 중국군

옥쇄위기에서 결사대 1조에 4명씩 7개조를 편성

——위안부도 포함

9.7까지 결사항전하다 전원옥쇄함

4. 중국의 경한 작전 제12군 4개사단 참전

이나무라 대대장의 훈시

;나는 낙양공격때 양손에 옥수수를 들고 세명을 강간

마리아나섬에서 군용선을 타고 귀환하던 위안부

미 어뢰에 맞아 수장됨

4. 조선총독부 군무예비 훈련소 개소

5. 제20집단 남맹 탈환작전을 개시

연합군은 사이판으로 향함

버어마의 망시지구

임신부 포함 위안부 10명을 일본군이 구출함

- 6. 3 위안부들, 용릉 주둔의 제 56사단과 차단
독자행동을 취하게 됨
카네코 소좌 등월 출격시 위안부 7명을 모두 동반시킴
일본군의 관심이 등월로 향함
- 6. 7 남맹남서지구로 중국군이 맹공격을 가해 옴
- 6.19 위안부 그룹 관산지구에서 머무름
————최전선과의 거리 300미터
- 6.27 등월지구 2020명 수차례에 걸쳐 옥쇄
- 9. 6 카네코 소좌의 폭사
조선인 위안부에게 투항할 것을 권고
일본인 위안부는 청산가리를 먹고 자결함
————후에 7구의 시체가 발견됨
- 6.20 작전 중인 제1선에서 사토사단장 해임됨
- 7.11 작전 중지
- 7.12 서갑수 가벼운 진통 끝에 딸 순산
- 6. 군직할 제마공원 자격 제8차 자바 파견 여군속 200명 모집
————고오베에 집결
- 7.14 여군속200명 타코제26선단 을 타고 자바행
- 8.21 미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
————소해정의 구조로 30명만 생존
생존자들 루손섬의 북서부 병참으로 가
위안부가 될 것을 명령받음
————24명이 위안부로 전락
이 시기, 일본 적십자사 양성소장
"간호원은 죄수
훌륭한 여죄수가 되어 달라"
버어마의 만달레 위안소
————평양에서온 위안부
버어마인의 강간사건에 대한 항의
————상부는 왜 굴치 아프게 그때 죽이지 않았느냐
용 제56사단 큐슈 구주메부대
————산악지대에까지 위안부를 데리고 다님
제 16사단 선전반
;필리핀의 아티모만 상륙작전 후
바티안반도의 미.필리핀 군에게
투항권고의 비라토 춘화를 뿌림
버어마 사정관 —네덜란드의 첩을 두며 업색
————종전 후에 네덜란드 첩의 고소로 형무소 행
- 8 여자 정신대 근로령 공포
(12 - 40세의 여성.정신대 동원의 법적 근거)
- 8.23 학도근로령 공포
- 8. 사이판 전멸 후 데니안섬에 60명의 위안부가 새로배치됨
위안소 세곳에 개설됨

대대장의 정중한 훈시

“당신들은 전쟁의 힘이다”

9. 7 라바울의 생존자 전원 옥쇄

9.12 등월지구 위안부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으로 폭사

조선인 위안부 입시간호부가 됨

버어마 탱군에 있던 100명의 위안부 중

70명이 조선인 위안부

————모두 군대에 버려진 채 시탄강을 건너던 도중
군포와 함께 익사

다바오의 위안소

————군대에서 버려진 조선인 위안부 4 -5명

다바오에 잔류해 떠돌

북버어마의 미토키나의 60명 위안부

————후방으로 대피하지 못한 채

이자와지강을 뗏목타고 건너다

타류에 휘쓸려 감

10 루손섬 남은 제 81여단과 제 82여단

————30여명의 위안부를 버리고 독자 행동을 함

11 샌프란시스코 교외의 수용소

————일본인 포로 7천명 수용

11.10 후생성 여자징용을 실시

1945. 1. 4 생존 위안부들 루손 섬에서 바기오로 이동함

1. 8 미군, 루손섬에 상륙

남보루네오지역

————군용선이 아닌 병원선(나가카와마루)로
위안부와 부상병을 일본으로 송환함

1. 6 미군, 링가만에 상륙

일본군과 위안부 500명 ,루손섬의 북부인 바기오지구
에 집결함

이후, 북부산지로 도주

마닐라 지구에 위안부 200명 잔류한 것이 목격됨

1.18 위안부의 행로 상호세, 봉캉, 파라테 교개의 북쪽기슭인
산타페 계곡에 집결

————니파하우스에서 생활을 해나감

2. 3 미군, 마닐라 입성

2.25 단달레이 카우세에서 8명의 위안부를 목격함
(오오에 오장)

3.20 위안부들, 밥버러지로 취급을 받음

4. 1 미군, 오키나와 상륙

4. 서갑수의 모녀 민가를 찾아가다 미 공습으로 피살됨

5 버어마의 위안부 500명 중 100명 행방불명

6. 남방항로가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20명의 위안부를 실은 수송선이
헬마헤라섬으로 포류되어 음
7. 일, 중국과의 전쟁을 포기
——제59사단 산둥반도에서 홍남으로 후퇴
8. 9 소련군의 진격
——학광탄광 일본 부녀자들
치욕 당하기 전에 스스로 죽으라
청산가리로 자결
- 8.10 뽀로나이스크 에서 조선인 위안부 5 -6곳에
약 20명이 생존
그러나 기차 참사를 당해 4 -5명만 생존
- 8.15 종전
조선총독부 뒤뜰의 자료소각의 연기
수마트라에서 메당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일본군 200명에게 위안부들 다시 운간 당함
——군기의 해이
전후 싱가포르 툴론 항에서
200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목격
——차주환
일, 여성편성계획
사이파마하현 농촌부녀자로 1중대 103명이 편성됨
- 8.17 내무부, 보사부, 경찰국 국장회의
- 8.21 일, 차관회의 조선인 징용 해제
9. 1 특수위안시설협회 설립 결정 내무성의 입안
9. 9 여성군 특공대로 미 위안소에 분산 수용됨
전 일본 부인의 방패 역할
1946. 1 미 위안소 폐쇄 조치
해방 후 한국에서의 이혼사태
——8천에서 1만 2천명
사회문제로 심화되어 나감
1964. 2.14 한국일보
——베트남에 버려진 조선위안부의 죽음
1969. 8.15 서울신문
——정신대는 사실상 소년대원이라는
이름의 위안부대
1개 소대에 2-3명씩 배속되야 했던
천황의 하사품
「한운사」
1970. 8.14 서울신문
——정신대 이야기
- 1972 한국여성사 발간
이화여대 편집제3권 ——최초의 한국여성 풍사